

# 지역 경기회복세에도 고용은 부진

## 제조업 수출 호조 불구 서비스·건설업계 취업자수 큰폭 감소

최근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생산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용인력이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5월 중 광주·전남 지역 제조업 생산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

달(11.1%)에 이어 증가세(13.9%)를 지속했고 6월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달보다 소폭 상승(94→95)했다.

5월 중 소비재 백화점을 중심으로 의복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고 건설활동도 건축착공 면적이 전달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개선됐다. 6월 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증가한 가운데 광주는 타이어(+64.4%), 자동차

(+32.2%), 가전(+16.2%) 등이, 전남은 선박(-46.4%)을 제외한 철강제품(+72.9%), 석유제품(+43.7%), 석유화학(+26.5%)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같은 경기회복세에도 6월 중 고용은 서비스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했다. 남양건설·금광기업 등의 법정관리 신청 여파로 건설업계 고용도 크게 줄었다.

제조업 고용은 5월(+2만2600명)

에 이어 6월(+1만9400명)에도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서비스업(-1만8700명→-3만8200명)은 감소세가 확대됐고 건설업(+4800명→-6500명)도 감소로 전환했다.

실업률은 전달보다 상승(2.3%→2.7%)하고 고용률도 하락(61.5%→60.8%)했다. 이밖에 6월 중 소비재물가는 2.7%로 전달 수준을 유지했고 기업자금사정은 자금사정BSI가 전달보다 소폭 상승(92→93)한 가운데 어음 부도율(0.45%)이 전달(0.4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홍보부족에 문의 '빚발' 창구는 '한산'

## 서민 대출 '햇살론' 출시 첫날 반응

서민 대출상품 '햇살론'이 출시된 첫날인 26일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영업점에는 상담전화기가 이어졌다. 오전과 달리 오후 들어 대출 창구도 조금씩 분주해지기 시작했으며 곧바로 대출서류를 접수한 신청자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햇살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에 일부 방문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상담만 받고 돌아서기도 했다.

광주시 동구에 있는 '골든 브릿

지 저축은행'은 이날 햇살론 대출 창구를 개설했으나, 방문 고객은 10여명에 그친 반면, 대출 관련 상담전화기가 잇따랐다. 광주·전남지역 109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도 방문상담 보다는 자신이 대출자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전화상담 고객이 대부분이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70개 신협 대상으로 대출실적을 점검한 결과 소수 대출 신청이 접수된 데 그쳤다. 한 신협 관계자는 "아직은 홍보

가 덜된 것 같다"며 "전화상담을 받아보면 햇살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날 소득증명을 위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떼어와야 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는 바람에 오후에 다시 한 번 창구를 방문한 고객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앞으로 더 홍보에 나선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출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 배추·마늘 가격 폭등

배추 가격이 전달보다 50% 가까이 폭등하는 등 계절적 요인 탓에 채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배추의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3천 781원으로 6월 말보다 47.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간마늘(kg당 1만182원)은 한 달 사이에 42.4%가 올랐고, 무(개당 2437원)는 26.3%, 오이(10개당 7963원)는 19.2%가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간마늘 가격이 무려 86.7%나 올랐고, 무는 75.6%, 배추는 57%가 오르는 등 채소류의 가격 상승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최근 잦은 비와 폭염으로 인한 공급부족 및 계절적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마늘, 닭고기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격 급등락 가능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 중복 보양식엔 철갑상어

중복(29일)을 앞둔 26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색 보양식인 철갑상어가 선보였다. 철갑상어는 혈액 순환 및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으로 꼽히고 담백한 맛이 특징으로 회·매운탕·찜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다. 가격은 1팩당 3만8000원. /연합뉴스

중복(29일)을 앞둔 26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색 보양식인 철갑상어가 선보였다. 철갑상어는 혈액 순환 및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으로 꼽히고 담백한 맛이 특징으로 회·매운탕·찜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다. 가격은 1팩당 3만8000원. /연합뉴스

# 전남 농산물 동남아 입맛 사냥

전남 농산물이 올 하반기 동남아 입맛 사냥에 나선다.

aT(농수산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이하 광주전남지사)는 26일 "오는 8~9월 중 말레이시아·중국·홍콩 등지에서 집중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마케팅은 추석절 농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중국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광주전남지사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광주전남지사는 오는 8월초 말레이

시아에 열리는 남도식품관측전에서 하반기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시작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남도 농수산 가공식품 10여개 품목이 현지 대형유통망(Cold Storage 슈퍼체인점)을 비롯, 20여개 매장에서 선보인다. 품목은 유자차·버섯류·양파음료·삼계탕·김 등이다.

같은달 열리는 홍성식품박람회에서는 천일염·건전복·기정떡·조미김·해초샐러드 등 남도 대표 특산물이 전시된다. 행사기간 시식·수출상

## aT광주전남지사

### 8~9월 판촉전 나서

담 등 마케팅 활동도 펼쳐진다. 이 행사는 관람인원이 30여만명에 달하는 대형 박람회다. 9월에는 전남농산물 베이징 관측전도 예정돼 있다.

광주전남지사 윤승식 수출유통팀장은 "전남지역 20개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종합적인 수출마케팅지원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남지역 3억달러 농식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금융민원 절반이 '보험모집' 코스피 1769

## 올 상반기 633건 달해

광주와 전남·북지역 금융민원 10건 가운데 5건 이상이 보험모집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지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78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707건) 증가했다.

상담민원은 6754건으로 23.7%(1296건) 증가했고 서류민원은 1130건으로 34.3%(589건)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모두 1156건을 처리했다.

서류민원 처리 결과, 보험민원이

633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민원은 308건(26.2%), 신용카드사, 신용정보사,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권 민원도 213건(18.4%)에 달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은행·비은행 민원의 경우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와 추가 대출, 대출 연장 등을 요청하는 대출 관련 민원이 234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79건(15.2%), 신용정보 50건(9.6%), 신용카드 46건(8.8%), 담보·보증 41건(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코스피 1769

## 유럽발 위기 해소·연중 최고

코스피가 유럽발 불확실성 해소에 1760선을 회복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코스피는 26일 11.01포인트(0.63%) 오른 1769.07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774.05까지 치솟아 1770선을 넘어선 뒤 지난 14일 기록한 장중 전고점(1764.81)을 갈아치웠다.

지수는 이후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과 올해 상반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재료 삼아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 키워드 경제 주식회사는 자본금 댄 주주들의 회사

주식회사는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대 운영하는 회사 형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을 자본금,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한다.

주주들은 각자가 보유한 주식 금액에 비례하는 영향력과 책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한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식금액에 비례해 배당금을 받는다.

회사 경영에 따른 재산상 책임도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금액만큼 지면 된다. 개인기업이라면 기업의 부채나 손실은 기업주,

곧 투자자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아야 하지만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는 그런 부담이 없다.

보통 새로 생긴 주식회사는 흔히 친인척 등 몇 안되는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주식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회사를 비공개 회사라고 부른다.

기업 공개는 기업이 이미 발행했거나, 신규 발행할 주식의 전부를 또는 대부분을 주식시장에 내놓고 공개리에 불특정 투자자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다.

주식은 액면주 또는 무액면주

발행할 수 있다. 액면주식이란 액면에 주식발행단가(1주의 가격)를 표시한 주식이다.

이 주당 가격을 표시한 부분을 액면가라 부른다. 액면에 적은 가격은 액면가라고 한다. 액면가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매겨진다.

무액면주 즉, 무액면 주식은 액면가가 '0'원인 주식이다. 액면값이 지분율(지분 비율), 곧 자본금의 몇 %에 해당하는지만 표시해 발행한다. <끝>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자료제공=(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민나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를 세계민나다! 1300-8499-1111-22-8108